



M I N I I N T E R V I E W



가축전염병 방역 실패=오리산업 전반 '악영향'
오리, AI 취약 축종...방역정책 적극 협조 당부



최옥봉 경기도 조류질병관리팀장



야생조류는 기러기와 오리로 나뉘지
는데 야생종 오리와 농가들이 사육하
는 오리는 같은 부류로 친화적인 수
용체가 있어서 사육하고 있는 가금에
서도 오리가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는 일반 산란계와 육계와는 차이가 있어 사육 분
류가 다릅니다. 오리의 경우 내병력이 강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를테면 육계는 AI에 걸리면
현증이 나타나서 폐사되는데 오리는 이를 이겨내기 때문에 축주가 감지를 못하고 오랜 시간
지나면 역학적으로 출하되면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
하면 서해안 벨트는 AI에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리적 위험도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정량적인 부분에서 정책을 펼친다는 것입니
다. 오리류가 바이러스 자체에 수용체가 있는 것으로 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
다. 오리농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전세계적 AI 대유행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계란가격이 폭등하는 사태를 보면,
가축전염병의 방역 실패는 곧 오리산업을 비롯한 국내 가금산업 전반에 큰 악영향으로 이어
잡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핀 좋은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오리농가는 AI 방역상 취약 축종으로 타축종 대비 방역정책상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사육경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경기도 방역정책에 협조해주시고
동참해주시는 경기도 오리농가에게 늘 감사드리며,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을 약속드립니다.

